

1. 종교다원주의 배격
1. 동성애 반대
1. 차별금지법 반대
1.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276호

6월 14일

2025년

토요일

# 牧羊新聞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서울 다-0785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농협  
301-0153-7296-01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교회

■ 문의

02)2675-5181~3

## 자유민주주의·한미동맹 안보강화

### 호국보훈의 달 맞아 순국선열의 희생정신 기려야

#### 제74차 총회 제1회 임원회

교단 총회(총회장 엄하석 목사) 제74차 총회 제1회 임원회가 지난 6월 9일(월) 오전 11시 은혜와진리교회(당회장 조용목 목사) 회의실에서 열려 각종 보고와 회무를 처리하고 주요내용 등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스포츠선교회 걷기동우회 걷기대회에 참석한 회원들과 함께 했다. 이날 예배는 스포츠선교회장 정영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정석현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김은숙 목사의 특송,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용목 목사는 롬 8:28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새롭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선편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좇아 행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훌륭히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전하고 임원들을 축복했다.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유봉수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열린 회의에서는 서기 문찬우 목사의 회원점명, 총회장 엄하석 목사의 개회선언, 총무 오세준 목사의 총무보고, 재무 최정식 목사의 재무보고, 회계 백영자 목사의 회계보고 사항으로 이어



졌다.

총무 오세준 목사는 74차 정기총회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라는 주제로 은혜 가운데 치러지고 임원진이 새로이 개편되었음을 보고했다. 제13회 전국사모연합회 정기총회도 같은 날 개최예배 후 개최되었음과 해외 선교사 목사안수식이 거행되었음을 보고했다. 결의 및 안건 토의사항에서는 교회주소변경 보고, 교회전출임 청원, 교역자 복귀 청원, 교역자사임 청원, 교역자소천 보고 건과 결석인 전도국장과 농어촌국장 임명 건 등을 보고했다. 또한 7월 17일(목) 74-1차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6월 19일(금) 74차 총회

제1회 고시위원회 건, 전방부대위문이 6월 25일 실시되는 것 등을 보고했다. 임원들은 감염병이 각 나라별로 발생보고가 있는 만큼 예기치 못한 전염병 예방을 위해 위생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총회원들에게 당부하기로 했으며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또한 말씀 왜곡으로 영혼을 수렁으로 빠뜨리는 사이비집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새정부들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일이 없도록, 북한의 무력도발 중단과 핵무장 야욕을 봉쇄하기 위해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과 국가안보에 틀어 쟁기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특히 6월 호국보훈의 달과 현충일을 맞아 국군 등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건 후세인 우리의 당연한 도리이며 6·25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운 유엔군과 전후에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희생한 주한미군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한 미군과 ‘한미동맹’의 지대한 역할을 결코 잊어서 안 될 것이다.

####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외 다수단체 성명서 발표

##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의미가 전혀 달라...

## 국립국어원의 사전 등재행태는 국민 미혹하는 기망행위

국립국어원의 gender 평등(성평등)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위배되는 것

최근 국립국어원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성평등’ 용어를 등재하였다. 이는 기존에 등재된 ‘양성평등’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거의 비슷하다.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동일한 의미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미혹하는 기망행위이며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외 다수단체는 공공기관의 정치 편향적 행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 5월 27일(화) 국립국어원 정문 앞에서 오전 11시에 집회를 개최하여 연사 발언 및 성명서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언은 최광희 사무총장(17개광역시도약법대응본부)이 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성평등”용어에 대한 해설을 올바르게 수정해달라고 촉구한다. 현재 “성평등” 의미는 “권리, 의무, 자격 따위가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이라고 해설하고 있고, “양성평등”은 “양쪽 성별에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이라고 해설한다. 그런데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의미가 전혀 다르며, 성평등이 젠더 평등을 의미하며 수많은 성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한다. 국

립국어원이 성혁명 세력에 이용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성혁명을 반대하는 국민 다수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평등’은 젠더 평등을 의미하고, ‘젠더’는 생물학적인 성(sex)과는 다른 사회적 성을 의미함을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두 번째로 이한나 소장(칼레피)이 발언했다.** 성교육 강사로서 교육의 혼란을 초래하는 “성평등” 용어 왜곡에 대해 우려하였다. 현 시대는 더 이상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동일한 언어로 사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마치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동일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양성평등”은 남녀평등이라는 의미가 명확하다. “성평등”에서의 성별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세 번째로 신효성 교수(명지대 겸임교수)가 발언했다.**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원래 국제적으로 젠더 이데올로기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서 남성과 여성뿐

만 아니라 트랜스젠더, 제3의 성, 논바이너리라는 여성과 남성의 이분법적 성별개념을 벗어난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두 성 사이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말하는 개념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성평등은 명사로서 권리, 의무, 자격 따위가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이라고 되어 있다. 양성평등도 명사로서 양쪽 성별에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이라고 되어 있다.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같은 뜻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네 번째로 안석문 상임총무(한국교회다문화대지킴이연합)가 발언했다.** 국립국어원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성평등”을 이같이 정의했다. “권리, 의무, 자격 따위가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 중요한 것을 빼먹고 왜곡한 아주 잘못된 개념 정의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며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정상적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면 양성평등을 실현하려고 당연히 힘쓰고 성의있게 개선해 나갈 것이다.

**다섯 번째로 금글로리아 회원(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이 발언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고, 양성평등 기본법 제 3조에서는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 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는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



##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



조용목 목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 12:2)

자연현상이나 자신의 신체기능 그리고 가족이나 이웃사람에 대한 믿음이 모두 상실되어 버린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한시도 안정된 마음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에게 생존을 위한 능력이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결과가 막중한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할 중대한 믿음과 그 믿음의 출처와 근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였습니

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믿음의 출발점이시고 종착점이 되신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주시 뿐 아니라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하여 듣는 사람은 놀랍고 기이한 믿음을 가지게 되며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은 그 내용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여섯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속죄의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주셨습니다. 사람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속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 8:1)라고 하였습니

다. 둘째, 영생의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생을 얻지 못하면 육신의 죽음이 둘째 사망으로 가는 관문이 됩니다. 육신의 죽음은 처음 사망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계 20:13~15)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예수

님 재림 전에 죽었던, 예수님 재림 시에 살아있든 모두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영생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자녀 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였습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신비로운 출생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롬 8:15,16)

넷째, 신유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는 우리의 연약과 질병의 치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약한 자와 병든 자를 수없이 고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병든 자는 치료받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였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하였습니

다. 다섯째,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유혹과 핍박과 환난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사 41:10)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히 13:6)

여섯째, 천국과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실제로 천국의 영광 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계 21:1~4)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까지 미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속죄, 영생, 하나님의 자녀 된, 신유, 하나님의 돌보심, 천국과 부활에 대한 믿음의 출처와 근원이시며 또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주십니다.

(은혜와진리교회)



#### 성명서

국립국어원은 ‘성평등’ 용어의 허위 설명 등재를 수정하고, 대국민 미혹 행위를 중단하라!

최근 국립국어원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성평등’ 용어를 등재했다. 그런데 ‘성평등’ 단어를 “권리, 의무, 자격 따위가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이라고 설명해 놓았다. 이는 명백한 허위로서 ‘성평등’ 용어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절대 아니다. 이보다 먼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양성평등’ 단어는 “양쪽 성별에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이라고 되어 있다. 결국 국립국어원은 ‘성평등’ 용어가 마치 ‘양성평등’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국민을 미혹시키는 기망행위로서 진실성을 촉구하는 아주 나쁜 짓이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이런 정치 편향적 행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다르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상식적으로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동일한 용어라면 굳이 왜 성평등 용어를 만들었겠는가? 국어 전문가들이 모인 국립국어원의 수준이 초등학교생만 못하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

2면으로 이어집니다



# 총회 앞두고 동성애반대 8월 전국대회

기장 동성애반대대책위, 사랑의교회 안성수양관에서

한국기독교총장교회(기장) 동성에·동성혼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현 목사, 이하 동대위)가 오는 8월 25-26일 1박 2일간 안성 사랑의교회 수양관에서 전국 선교대회를 개최한다.

기장 총회 동성에·동성혼 반대에 서명한

목사 334명과 장로 867명들을 비롯해 교단을 위해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경비는 후원헌금으로 진행한다.

동대위 측은 “기장 교단 신학교인 한신대학교 신학과와 신학대학원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이탈해 쿼어신학을 가르치는 것에 분노한다”며 “한신대 K 총장은 지난 4년 동안 총장으로 있는 동안 여전히 쿼어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행태에 대해 ‘학문의 자유’라는 이유로 묵인할 뿐 아니라, 쿼어신학을 번역하고 가르친 교수를 한신대 교목실장으로 임명해 지난 제109회 총회에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K 총장은 오는 9월 기장 제110회 총회의 인준 절차를 거쳐 공식 취임할 예정이나, 총회 전까지 기존 입장만 고수한다면 총장 인준 절차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K 총장이 쿼어신학과 기장 헌법 신앙고백서에 대해 총회 전까지 공개적 정확한 입장 표명과 후속 조치를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 굿네이버스, 7월 30일까지 ‘건강 미션 참여 챌린지’

아동 건강권 증진 캠페인 ‘지금, 움직여 봐!’ 전개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회장 문희영)는 6월 9일(일), 아동 건강권 증진을 위한 캠페인 ‘지금, 움직여 봐!’를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은 점차 악화되고 있는 아동의 신체 및 정신 건강 문제에 대응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보건복지부의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9세17세 아동의 비만율은 14.3%로, 2018년 3.4%에서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중 앉아있는 시간은 524분에서 636분으로 늘고,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8.29시간에서 7.93시간으로 줄어들었다.

정신건강 치료 역시 악화되었으며, 심각

한 스트레스 및 우울감을 경험한 고위험군 아동의 비율은 4.9%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울증 및 불안장애로 진료를 받은 7세18세 아동·청소년은 각각 5만 3,070명, 2만 8,510명으로, 2018년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다.

굿네이버스는 이러한 상황에 주목해, ‘움직임’을 핵심 키워드로 한 건강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비만 예방 △수면 건강 △마음 건강 △좌식생활 개선 위한 실천 수칙을 안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캠페인의 참여 확산을 위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공동으로 ‘전 국민 건강 실



천 챌린지’도 운영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모바일 경기 앱 ‘워크온(WalkOn)’에서 ‘지금, 움직여 봐!’를 검색해 건강 미션에 참여할 수 있으며, 6월 9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행된다.

### 1면에서 이어짐

양성평등(남녀평등)과 성평등은 그 의미가 분명히 다르다. ‘성평등’은 ‘gender’를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 헌법과 법률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 등 주요 국제인권조약에서는 생물학적 성별인 ‘sex’를 사용하고 있을 뿐 ‘gender’라는 용어가 법문에 사용되어 있지 않다.

Gender라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전제하고 있는 남녀 성별 2분법 체제를 폐지하고, 간성, 무성, 더 나아가 수십 가지 젠더, 즉 제3의 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개념이다. 2016년에 뉴욕시 인권위원회는 31개의 젠더를 승인하였고, 이후 뉴욕시는 제3의 성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헌법 우리 헌법과 법률은 양성평등에 근거하여 남녀 성별 2분법 체제를 채택하였고, 생물학적 성을 성별 결정 기준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반하는 gender 평등(성평등)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에 서울시의회는 기존의 ‘서울특별시 성

평등 기본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바꾸었고, 각 조항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모두 개정했다. 또한 지난 4월 24일 민주당 장철민의원원은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가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후, ‘성평등’ 용어를 수정하겠다고 했고,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했다.

마지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동일한 것처럼 포장하는 국립국어원의 흑세무민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립국어원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포기하고, 성혁명 세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려고 하는가? 성평등 용어에는 남녀의 수십 가지 제3의 성(젠더)가 포함된다는 올바른 설명을 등재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만약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허위 설명이 수정될 때까지 강력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2025. 5. 27.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외 다수단체 17개광역시도약법대응본부, 서울학부모나래연합, 캄레타,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 수도권

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반동성애기독교민연대(반동연),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국민주권행동, 반동성애국민연대, 인권수호변호사회,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교언론인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바른문화연대,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국기독교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가동성연대,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감독,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 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인권수호변호사문화회시민연대, 가정과자녀수호협회, 청소년교육사랑협회, 건강환경기초단체국민연대 외 시민단체

## 예성, 연차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신임 총회장에 홍사진 목사 선출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홍사진 목사/이하 예성) ‘성결교회 선교 119연차대회 및 제104회 정기총회’가 지난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강원도 원주 소재 오크밸리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예성 소속 대의원과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행 1:18)’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정기총회는 19일 오후 2시 개회예배로 시작했다.

이어 성찬식, 공로패 전달 및 시상식, 103

회기 경과보고, 임원선거 및 취임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같은 날 저녁 119회 연차대회를 가졌다.

이어 20일에는 경과보고와 전형위원 선출 및 각 부 조직보고, 청원서 및 건의안 보고 및 수리, 폐회예배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총회에서 홍사진 목사가 104기 총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홍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목회자들의 영성 회복과 교회 부흥을 위한 원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교단의 위상을 높이고 목회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주도 하계 수련회 개최, 폭넓은 인사정책 실시, 연말에 신년 목회계획 세미나를 개최하여 교단 목회자들에게 목회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한성서공회 제143회 정기이사회 개최

신임이사장에 이선균 목사 선임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사장 권의현) 제143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5월 29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초 성서회관에서 개최하여 신임 이사장에 이선균 목사(아현중앙교회 원로)를 선임했다. 1부 기도회에서는 박재학 목사(광명교회)가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자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2부 회무처리에서는 신 이사 중 교단 대표로 김경현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가 소개되고, 이어서 권의현 사장의 출판·보급 보고와 호재민 총무의 보급 사업 보고, 이두희 소장의 성경번역연구소 보고가 있었다.

안건으로는 교단 대표로 김창환 신부(대한성서공회)가 선임되었고, 신 임원에는 이사장 이선균 목사, 부이사장 양병희 목사, 서기 김경원 목사, 회계 조성봉 목사가 선임되었다. 실행위원에는 김동권 목사, 김순균 목사,



김현배 목사, 정하봉 목사, 손인웅 목사, 김재곤 목사가 선임되었다.

그리고 이두희 번역담당 총무를 재 선임했다.

신임 이사장 이선균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앞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맡겨주신 이사장 역할을 성실히 감당 하겠다”며 “앞으로도 모든 이사

들과 함께 말씀 보급 사역을 충실히 이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금년 4월 8일, 영락교회에서 「새한글성경」 봉헌 예배를 드리고, 이어서 새한글성경이 다음 세대에 미칠 영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금년 상반기에 탄자니아, 르완다 성서공회 대표들, 미주 지역 성서 출판 서비스 책임자가 방한하여 성서 주문과 아울러 성서 출판 및 보급 확대 방안에 관하여 회의를 했다. 또한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포르투갈어권 성서공회들의 회의에 참석하여 성서 출판에 관하여 소통과 협력의 기회를 가졌다.

금년 상반기에 ‘새한글성경’ 43,654부를 포함하여 총 231,716부의 성경을 보급했다. 금년 상반기에 72개 나라에 98개 언어로 1,760,488부의 성서를 제작하여 보급했다.

## “성결대, 새로운 도약을 선언하는 자리”

성결대 제10대 총장 정희석 박사 취임식 개최

성결대학교(www.sungkyul.ac.kr, 총장: 정희석)가 2025년 5월 30일, 성결대 학술정보관 6층 아람국제회의실에서 제10대 총장 정희석 박사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취임식은 성결대학교의 새로운 도약을 선언하는 자리로, 교내 구성원은 물론 교단 인사, 법인 관계자, 안양시의회 및 지역사회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행사는 1부 취임예배와 2부 취임식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 취임예배는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홍사진 목사의 말씀과 증경총회장 김만수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2부 취임식에서는 성결대 전 이사장 박광



일 목사를 비롯한 전·현직 대학 인사, 최대로 안양시장, 강득구 국회의원 등 지역 대표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또한 일본 고베 학원대학교 Bishu Nobuhiko 총장, 오사카관광대학교 Yamada Yoshiharu 총장이 축하 메시지를 영상으로 국제 협력과 연대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전달했다.

정희석 총장은 성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여 기획처장, 대외홍보처장, 산학협력단장, 교학부총장, 대외부총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으며, 대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안양시 및 정부 자문위원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계에도 헌신해 왔다.

## 제28차 신바람 목회세미나 개최

커피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전도방안 모색

비전교회와함께하기운동본부(회장 김진호 감독)는 제28차 신바람목회 세미나를 지난 5월 22일(목) 태은교회(담임 최우성 목사)에서 ‘커피 문화와 나의 목회’를 주제로 갖고, 커피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전도 방안을 모색했다.

첫 번째 강연에 나선 최우성 목사(태은교

회)는 초기 커피의 역사와 커피가 어떻게 교회에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해 최 목사는 “편견을 갠 신앙의 용기에 있다”라며, “존 웨슬리의 경우에도 커피를 절제된 삶과 건강한 사역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간주하고, 브리스틀 뉴륨의 유물로 남아 있는 커피통은 그의 실제 생활과 커피의 연결성을 보여준다”

라고 귀띔했다.

최 목사는 특히 자신이 시무하는 태은교회의 커피사역과 열매와 관련 ‘바리스타’사역을 강조하며, “이 사역은 도구, 사랑은 목적”이란 철학 아래 교회와 지역,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열매를 맺고 있다”라며, “어르신 점심 나눔, 장애인 고용 연계, 주민 대상 커피 강좌 등으로 교회가 ‘주민이 먼저 찾는 공동체’가 됐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강연에 나선 남광현 목사는 45년 역사를 가진 전형적 어촌교회인 동백정교회를 소개하고, 커피를 활용한 한계를 극복한 전략을 공유했다.

남 목사는 먼저 어촌만이 경험하는 경제구조 문제에 대한 어부들의 이해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 제19차 한국의료선교대회, “소망의 인내” 주제로

전 세계 의료선교사와 기독 보건의료인 950여 명 참석

제19차 한국의료선교대회가 지난 6월 5일(목) 서울 새문안교회(담임 이상학 목사)에서 “소망의 인내(Enduring Hope)”를 주제로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개막했다. 이번 대회는 (사)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회장 박준범 선교사) 주관으로 열리며, 국내외의 의료선교 통합 및 세대 간 제자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의료선교대회는 1989년 시작되어 2년마다 열리는 대회로, 의료인의 선교적 삶을 돌려주는 자리다. 올해는 의료선교협회 산하 84개 단체를 비롯해 의사, 간호사, 약사 등 950여 명이 참여했다.

대회장 박준범 선교사는 개회사에서 “이번 대회의 방향성은 국내외 의료선교 통합을 위한 개인, 교회, 단체 차원의 각성과, 학생부터 시니어까지 모든 계층의 선교적 제자 부흥”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청년 세대에게 내적 기쁨부으심과 선교적 헌신이 일어나기

를 소망하며 기도해 왔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계의 최근 갈등 상황을 언급하며, “기독 보건의료인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일상에서 제자도의 본질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명예대회장 이상학 목사(새문안교회)는 마가복음 5장 25-34절 본문으로 웰컴 메시지를 전하며, “혈루증 앓던 여인의 고통에서 의 회복은 곧 구원이다. 성경은 치유와 회복

을 구원의 영역으로 본다”고 설교했다.

GO선교회 대표 주수가 선교사는 미션 메시지를 통해, “학창시절 병약한 가운데 친구가 건넨 성경 말씀을 통해 부활의 신앙이 들어왔다”며, “이후 ‘예수님 충분하다’는 고백이 삶의 두 기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P주에서 사역 중인 외과전문의 민요셉 선교사와 B국 김현정 간호사의 간증이 ‘세상을 바꾸는 선교(세바선)’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1 생명의 말씀 1



어떤 점쟁이가 길가에 앉아 관상을 보는 데, 지나가는 한 사람의 얼굴을 보니 벌써 죽어야 할 상(相)인데 살아있는 게 기이하여 여겨져 그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간 집의 때문에 십자가가 선명한 교패가 붙어있는 것을 보고 '아, 예수를 믿으면 운명도 바뀔 수 있구나!'라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 가셨다가 마침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시고 술을 담았던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잔치상에 부으라고 하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 2:1-11)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옥 같은 운명에서 천국 같은 운명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저주 받을 운명에서 복을 받을 운명으로 변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를 꿈꾸어봅시다.

첫째로,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에서 낮은 자를 섬기는 자로 변함시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마지막 주, 즉 고난 주간 목요일 밤에 다아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완강하게 거절하였습니다.

# 주 안에서 당신은 얼마나 변했습니까?

(요한복음 2:7-9)

“주님, 안 됩니다. 어찌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제 더러운 발을 씻으려 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상관없는 사이가 되느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세족식(洗足式)을 행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려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요 13:3-17)

나이 먹은 사람은 나이 어린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지체가 높은 사람은 지체 낮은 자를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선배, 선배 하느님, 솔직히 선배가 별것입니까? 결국 세상을 더 길게 산 사람이란 결국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일본 모(某)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일날 한 헌병(憲兵)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당시의 헌병은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천황(天皇) 이외에는 건드릴 수 없을 정도라고 할 만큼 꽤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헌병이 교회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자신이 성전 입구에 벗어놓은 부츠가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노발대발하며 온 교인들을 뒤달렸습니다. “누가 감히 내 부츠를 건드렸느냐!” 그때 교회의 목사님께서 그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부디 화를 푸십시오! 우리 교회의 노(老)장로님께서 일본 중의원(衆議院, しゅうぎいん,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국회에서 하원을 부르는 말) 원장(院長)이신데 그 분께서 우리 교회의 신발장과 신발을 정리하는 봉사를 도맡아서 하십니다. 당신의 벗어놓은 부츠도 아마 원장님께서 깨끗이 닦아서 잘 모셔두었을 것이니 안심하십시오!” 그 헌병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고 합니다.

후배를 섬기는 것이 창피하십니까? 그런 데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신 분이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창피하십니까?

둘째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로 변함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 한 일이 없느니라” (막 9:23)

한 로마 백부장이 있었는데 자신이 아끼던 하인이 죽을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 장로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와 청했습니다. “그사람은 우리 이스라엘민족을 존중하고, 우리 민족의 예배처소인 회당(會堂)까지 지어준 인물입니다. 그의 하인을 치료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청을 따라 그의 하인을 치유하기 위해 길을 나서셨습니다. 그 사실은 안 백부장이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 말했습니다. “주님, 친히 여기까지 오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어찌 감히 주님을 저희 집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그저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럼, 내 하인이 나올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찬하셨습니다. (눅 7: 1-10)

저희 고향 충청남도 홍성(洪城)에는 소를 팔고 사는 장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장이 사는 날마다 어린 재 눈에 의아한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이 부리부리하고, 뿔이 곧은 흰 섶 황소가 자기마한 말뚝에 매여 움푹달라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 힐만 주면 저갓 말뚝 뿔아버리는 것은 일도 아닐 텐데, 어찌 저러고 있을까? 문제는 각인(烙印)입니다. 송아지였을 때부터 소의 꼬에는 한 번 말뚝에 묶이면 절대 도망갈 수 없다는 인식이 각인된 버리는 것입니다. 소는 그렇게 작은 말뚝에 묶여 있

다가 결국 눈물까지 흘려가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슬픈 최후를 맞이합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를 다니던 H양은 제가 전한 “할 수 있다, 해 보자!”는 설교에 깊은 감동을 받고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말씀의 확신을 바탕으로 삶의 꿈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녀는 인색한 이모님들을 가까이 스스로 설득하여 일정금액의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집을 개조하고 미용실을 세웠습니다. 미용실의 이름은 ‘헬시 바’(happy bar,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였습니다. 그 미용실은 꽤 성공했고, 그 일은 많은 성도들에게 큰 도전과 귀감이 되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 한 일이 없느니라” (막 9: 23) 이 말씀대로 한 번 믿어봅시다. 젊으리라면 환상을 품읍시다. 늙으리라면, 나이가 7, 80 대라고 해도 꿈 한 번 꾸고 도전해보는 용기를 가져봅시다. 당신이 백부장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임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셋째로, 타인의 티를 보고 질타하는 자에서 자신의 들보를 보고 통곡하는 자로 변함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마 7:3)

사람이 교만하면 자신의 약점은 안 보이고 타인의 약점만 보고 비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타인의 약점은 사랑으로 덮여줘야 합니다. 또 한 내게 있는 약점이 타인의 약점보다 크고

중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타인의 눈에 있는 티눈을 발견하게 된다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로부터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 속의 들보를 찾다면 통곡하고, 돌아서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타인을 비판하고 다니는 사람은 결국 자기 적(敵)들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약점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위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는 언제나 은혜와 진리의 꿀이 나와서 타인의 마음을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당신은 정말 주님 안에서 변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지는 않았습니까? 당신이 처음 교회에 나왔던 때는 언제입니까? 과거에는 “그것이 죄인인 몰랐다!”고 핑계 댈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타인의 죄를 생각할 겨를이 있습니까? 오히려 ‘아, 이 오랜 시간 동안 나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생각하며 통곡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당신의 발로 뚝뚝뚝 신학교의 문을 열고 들어갔던 날을 기억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 당신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그 때 그 심정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은사는 모두 어디에 두었습니까? 당신의 묵화는 그저 직업이 되었습니까? 감동과 변화는 소시적 이야기일 뿐입니까?

이제 돌아봅시다. 다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제 내 나이가 70입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나이는 무의미합니다. 늦은 것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간곡한 심정으로 권했습니다. (고후 6:1-2)

다시 주님 안에서 변화합시다. 이제 정말 새로워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합시다.

## 동정

### 원로목사회 가정의 달 감사예배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대표회장 김성만 목사, 이하 한기원)는 5월 29일(목) 한 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그레이스홀에서 5월 가정의 달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대표회장 김성만 목사의 개회선언, 박만진 목사(한기원 사무처장)의 사회, 김선필 목사(고신 개혁 총회장)의 대표기도, 박준서 목사(연세대학교 전 부총장)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 한미 동맹은 철통 같다...백악관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공식 확인한 직후,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라인에서 처음 나온 한국 대선 관련 입장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외교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세기총, 올바른 정치 강조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세기총, 대표회장 전기현 장로,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가 지난 6월 3일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700만 한국인 디아스포라를 위한 정책 마련과 화합의 정치, 그리고 민생을 살리는 정치에 대한 강한 기대를 표명했다.

### 제11회 직장선교비전포럼



직장선교사회문화원(직선문, 설립이사장 박홍일 장로·원장 국동진 장로)이 지난 5월 31일, 제11회 직장선교비전포럼을 열었다. 이 번포럼은 ‘미래지향적 직장선교 활성화 방안’(부제 ‘차세대·시니어 직장선교 인력 연계와 센터 활용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직선문을 비롯해 (대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등 직장선교 6대 기관이 공동으로 준비했다.



2부 제목기도 시간에는 전임총회장 김용덕 목사가 ‘세계 평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전임총회장 김병목 목사가 ‘정책위원장님과 교단을 위해’, 총회장 엄하석 목사가 ‘WCC 차별금지법 사회악법 반대’ 등을 주제로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으며, 조은혜 목사의 헌금기도,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유봉수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회원들은 2부 행사로 정책위원장과 회원들이 제공한 식사를 함께한 뒤 회원들은 봉담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으로 이동하여 황토길을 걸으며 심신을 단련했다.

회원들은 답소하며 걸으며 심신의 피로를 풀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속에서 사랑 나눔의 시간을 갖고 인근의 분위기가 있는 카페로 자리를 옮겨 서로에게 힘을 북돋우며 다음 모임을 기약하고 각자의 목회지로 향했다.

걷기동우회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건강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 정기적인 걷기 모임을 이어갈 예정이다.

##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 대한민국호를 바꾼 정권이 바로 세울 수 있을까?

6월 3일 치러진 대선에서 대통령이 결정되었다. 수많은 ‘시범리스크’와 부정·부패의 큰 결함을 가지고 있는 데도, 특정 지역의 절대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당초에는 절반에서 60%대가 넘는 지지로 당선될 것이란 전망은 깨지고 말았다. 절반 가까운 국민들은 그를 지지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의 대통령 당선은 당시 여당의 갈광질풍이 빛을 결과이기도 하다.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자신들이 뽑은 대선후보를 불법적으로 바꿔치기하려는 시도까지 한, 정체성 불명의 정당이 무슨 힘이 있었는가?

새로운 대통령은 다수결에 의하여 대통령에 당선되

었지만, 그에 대한 사법적 무게는 굴레는 여전히 남아 있다. 방송 3사가 선거 당일 5,190명을 대상으로 ‘이미 전쟁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을 때, 응답자의 63.9%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42.7%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보면 대통령 당선인이 얼마나 취약한 상대인가를 알 수 있다.

정말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흐트러지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면, 그 결과는 얼마나 더 큰 혼란이 될 것이며, 국가적 위신을 떨어뜨리게 될까? 그런데도 여당에서는 대법원의 법관을 현재 14명에서 30~100명으로 늘리는 ‘입법발의’를 하였다. 그 엄청난 늘어난 법관을 모두 세

로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은 완전히 입법부, 행정부를 차지했는데, 이제는 사법부조차 완전히 틀어쥐고 나가겠다는 시도가 아닌가?

전 권력과 지금은 야소(野小) 정당을 제2의 적력으로 몰아가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없고, 또다시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은 본인이 주장한 대로, 진보와 보수를 따지지 않는 절제와 포용과 협치를 실행해야 한다. 어느 언론의 말처럼 ‘권변 5년은 뭇가를 이루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이지만, 뭇들 방지기에는 하염없이 긴 시간이라’고 했다.

우리는 지난 8년 사이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여,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고통스런 시간을 보냈

다. 신임 대통령은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함부로 권력을 남용하고 지나친 욕심으로 국정을 망치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그런 분위기가 감지된다면, 그를 지지하지 않았던 절반의 국민들이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황금 같은 시간을 지난 6개월간 한 없는 다툼과 분열과 혼란으로 지새웠다. 이제는 그렇게 낭비할 시간이 없다. 국제적으로 냉혹하고, 국내적으로도 술한 난제들이 쌓여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들을 생각하며 ‘국민 머슴’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새로운 대통령은 국민을 무시하면 국민들로부터 막 바로 바람받는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란다.

또한 기독교계에 약속한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惡法)을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또 종교와 관련된 법률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독교는 애국의 종교로, 나라를 위하여, 국가 지도자를 위하여, 국가의 바른 정체성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종교이다. 이 나라가 불행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더욱 힘써 기도할 일이다.

## 2025년 6월 걷기동우회



설교 조용묵 목사  
정책위원장

#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 사역 감당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과 전원성전에서



기도인도 엄하석 목사  
총회장



사회 정영진 목사  
걷기동우회 회장

### 황토길 걸으며 심신단련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목회자들이 한 마음으로 결성한 스포츠선교위원회(위원장 정석현 목사) 산하 걷

기동우회(회장 정영진 목사) 회원들은 지난 6월 9일(월)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에서 황토길을 걸으며 심신을 단련했다.

먼저 전임 총회장 유봉수 목사를 비롯 33여 명의 동우회 회원들은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에 모여 74·1차 임원회에 참석한 총회장 엄하석 목사와 임원들이 함께 한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회장 정영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정석현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김은숙 목사의 특송, 교단 정책위원장 조용묵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용묵 목사는 롬 8:28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





# 강릉시 영적대각성을 위한 ‘2025 갈멜산연합대성회’ 성료

## 강릉중앙감리교회서 1~4일 열려…“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뜻 이루길”

강릉시기독교연합회(회장 김영철 목사, 강릉사랑교회)는 지난 6월 1일부터 4일까지 강릉중앙감리교회에서 '강릉시 영적대각성을 위한 2025 갈멜산연합대성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회는 지역 교회와 성도들의 연합과 회개를 위한 뜻깊은 자리로, 나흘간 총 9차례의 집회가 열렸다. 강사로 나선 소명중앙교회 김대성 목사는 “신앙은 달려가는 신앙, 올라가는 신앙, 즐겁게 영접하는 신앙”이라

며 “믿음의 선진들처럼 열정과 도전, 기쁨의 신앙을 본받아 구원과 응답의 축복을 누리자”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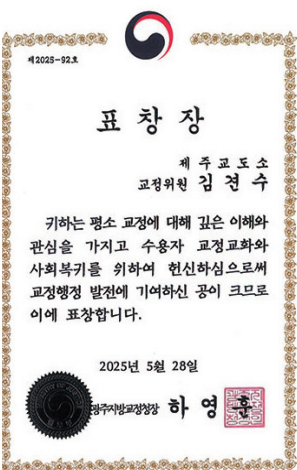
강릉시기독교연합회 회장 김영철 목사는 “이번 성회를 통해 회개와 성령,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 강릉뿐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한다”며 “강릉시의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함께 하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한편, 강릉시기독교연합회는 예하성 전임 총회장 김용덕 목사(영동제일교회)가 연합회장을 역임하면서 지역복음화를 위해 회원교회들이 하나 되어 화합과 통합의 연합회를 이끌어 왔다. 연합회는 매년 단오제 기간에 맞춰 '갈멜산연합대성회'를 열어 강릉시성서화와 영적대각성을 위한 연합의 장을 이어오고 있다.



## 수용자교화 공로 인정 광주지방교정청장 표창장 수상

제주지방회 김견수 목사, 수용자예배 인도… 성경필사노트 영치금지원



제주지방회(회장 안재홍 목사) 김견수 목사(제주하마음교회, 부흥사회장)는 수용자교화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지방교정청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제주교도소 교정협의회회의 추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김 목사는 지난 5월 28일(수) 오전 11시 전북 군산 리츠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광주지방교정청(호남권과 제주지역 포함, 총 9개 교도소 관할) 소속 교정연합회 정기총회에서 광주지방교정청장의 표창장을 수상했다.

김견수 목사는 제주교도소 교정위원회 기독교분과 위원들과 함께 매주 목요일 오



후 수용자들을 위한 예배를 인도하고 있으며, 재소자들에게 성경필사노트를 제공하고 있다.

필사 노트 1권을 완성할 경우 2만 원의 영치금을 지원하여 수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제주교도소로부터 모범수 5명을 추천받아 격주로 신앙생활의 기초에 대한 성경교육을 진행하는 등 꾸준하고 실질적인 교정사역을 이어오고 있다.

김 목사의 이러한 사역은 제주지역 교계 뿐 아니라 광주지방교정청 관할 전역에 걸쳐 수용자 교정과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너는 내 것이라 치유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경기북지방회

5월 월례회 예배 은혜롭게 드려져

경기북지방회(회장 문찬우 목사)는 지난 5월 13일(화) 오전 10시 30분, 예수사랑교회(담임 예정희 목사)에서 5월 월례회를 개최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교단과 교회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고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이번 월례회는 경기북지방회 제21차 정기지방회를 마친 후 첫 공식 모임으로, 회원들이 모여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예배의 장소를 제공한 예수사랑교회와 예정희 목사의 섬김에 참석자들은 깊은 감사를 전했다.

1부 예배는 오세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박용진·이상숙 전도사의 찬양 인도로 분위기를 열었다. 문찬우 목사의 대표기도, 사 43:1 말씀을 본문으로 한 예정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예 목사는 “너는 내 것이라 치유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내 삶과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 이보다 더



한 사랑은 없으며 이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합심기도 후 육준수 목사의 헌금 기도, 강인덕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월례회를 갖고 각종 회무를 은혜 가운데 처리했다. 이날 공지 사항을 통해 예정희 목사

의 박사학위 취득 소식이 전해져 참석자들의 축하가 이어졌으며, 교회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지방회 총무에게 통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방회 헌금 계좌번호와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한 안내도 함께 전달되었다. 경기북지방회는 앞으로도 매월 지속적인 월례회를 통해 영적 교류와 교단 내 유대 강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 “신앙과 삶의 균형 이룬 목회자로 성장하길”

경기지방회

박미정 전도사 목사 안수예배 거행

경기지방회(회장 김종연 목사)는 지난 5월 31일(토) 오전 11시, 순복음비전교회(담임 안재봉 목사)에서 박미정 전도사의 목사임직예배를 거행했다.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전하세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기 윤진철 목사의 대표기도, 재무 이동욱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지방회장 김종연 목사가 설교를 전했다.

김 목사는 엠 4:11~12 말씀을 본문으로 한 ‘영적 지도자의 요건’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지적인 권위자이자 영적인 지도자, 인성과 영성의 균형을 갖춘 목회자, 교회 공동체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2부 임직식에서는 김종연 목사를 안수위원장으로, 엄하석 목사, 임웅재 목사, 전하세 목사, 안재봉 목사가 안수위원으로 함께했다.

이후 김종연 목사는 박미정 전도사의 목사 안수를 공식적으로 공포하고, 목사임명장



과 임직패를 수여했다.

임직을 축하하는 시간에는 교단 총회장 이자 주성교회 담임인 엄하석 목사가 권면을, 교단 전임총회장이자 경기지방회 전임회장이며 산전리순복음교회 담임인 임웅재 목사가 축사를 전했다.

모든 순서는 회장 김종연 목사의 축도로 은혜롭게 마무리되었다.

이번 임직예배에는 경기지방회의 많은 목회자들과 사모들, 가족들이 함께해 박미정 목사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직접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도 지속적인 기도도 함께하며, 한 명의 목회자가 세워지는 귀한 사역에 동참했다.

이에 대해 회장 김종연 목사는 모든 회원에 대신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전북지방회, 6월 월례회 성령알곡교회에서 개최

무더운 여름, 말씀과 교제로 영·육의 회복을 누리다

전북지방회

전북지방회(회장 김상운 목사)는 지난 6월 9일(월) 오전 11시 성령알곡교회(담임 표재욱 목사)에서 6월 월례회를 가졌다.

1부 예배는 김희수 목사(익산순복음제일교회)의 찬양 인도와 통성기도로 시작해, 서정희 목사(순복음미향교회)의 기도, 정성열 목사 부부의 하모니카 특송, 임성애 목사(성

령알곡교회)의 은혜로운 간증과 찬양이 이어졌다.

말씀 시간에는 김상운 목사(익산성광순복음교회)가 출 17:1~7 말씀을 본문으로 ‘르비딤 하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사역 현장에서 갈등을 느끼는 이들에게 영과 육의 원기회복이 필요하다”며, 지치기 쉬운 여름철에 딱 맞는 회복의 말씀을 전했다. 예배는 김상운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되었다.

2부 월례회에서는 화원점명, 보고사항, 안건토의 등의 순서를 통해 회무를 진행했으며, 이후 표재욱 목사 부부의 따뜻한 섬김으로 마련된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식사 후에는 산으로 둘러싸인 경치 좋은 카페로 자리를 옮겨 빵과 차를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회원들은 준비된 선물을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각자의 목장지로 돌아갔다.









## “중독 없는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2025 국제 중독 컨퍼런스 성료

중독 예방과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공유... 광명 라까사호텔 16층 컨퍼런스홀



김도형 목사

한국나닥(KNAADAC, 한국 중독전문상담사협회)은 6월 6일(금) 광명 라까사호텔 16층 컨퍼런스홀에서 '2025 국제 중독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독 없는 건강한 사회”를 주제로, 국내외 중독 전문가들이 모여 중독 예방과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치료 현장을 공유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이미숙 한국나닥 대표의 개회사와 박시영 총무의 인도로 시작되었으며, 미국 NAADAC(미국 중독전문가협회)과 협력 중인 KNAADAC의 현황을 허뿔나 한국나닥 총무가 발표했다. 이후 주요 강연으로는 △이미숙 대표의 '중독 치료에서 가족 강화의 필요성', △테렌스 윌트 미국나닥 대표의 '미국 중독 치료 개요', △법무부 최경찬 주무관의 '대한민국 법무부 재활정책'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중독 치료 현장의 실제적 접근도 공유되었다. △마음사랑병원(이사장 의학박사 전문의)의 중독치료팀의 '마음사랑병원 소개 및 중독 병원 치료의 실제', △테렌스 윌트 대표의 '미국 중독 문제의 법적인 측면', △신시아 모레노 미국나닥 컨설턴트의 '미국



내 중독 치료를 위한 실질적 상담 접근법' 등의 발표가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김도형 한국나닥 이사장의 폐회사로 컨퍼런스는 마무리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중독 예방과 치료에 있어 협력과 실천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중독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예방과 회복 중심의 통합적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조명한 자리였다. KNAADAC은 앞으로도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 상담사 양성과 실질적인 치료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KNAADAC, '제12회 국제중독전문상담사 자격 시험 대비반' 운영  
중독상담 전문 인력 양성 위한 집중 교육...  
2025년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부여에서 개최  
한국중독상담학회(KNAADAC)는 오는 2025년 8월 11일(월)부터 15일(금)까지 충남 부여에 위치한 CIAI 부여 교육관에서 제12회 국제중독전문상담사(ICAC-BL) 자격시험 대비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비반은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상담사

양성을 목표로 하며, 참가자는 중독 약리학, 중독 상담, 중독 상담윤리, K-Essay 등 총 4개의 특강 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교육 수료 이후, 2025년 8월 16일(토)에 자격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다.

국제중독전문상담사(ICAC-BL) 자격은 국내외에서 통용 가능한 중독 전문상담사의 역량을 증명하는 자격으로, 중독 예방과 회복 지원, 심리상담 등의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KNAADAC 관계자는 “중독문제가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능력을 갖춘 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대비반은 실질적인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참가 신청 및 상세한 사항은 KNAADAC 공식 홈페이지(knaadac.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한국나닥 KNAADAC  
02-2681-2093 / 02-2682-2092  
knaadac25@naver.com  
www.knaadac.kr

## 거룩한방파제, 언론의 편향 보도 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동성에 실태 제대로 알려야...

귀어축제 개최를 앞두고 동성에 문제에 대한 객관적 보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독시민단체 '거룩한방파제'는 지난 6월 12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 종로구 기독교연합회관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14일 열리는 귀어축제에 앞서 동성의 실태를 제대로 알리고 사회적·보건적 문제점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거룩한방파제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한국 내 동성 간 성접촉을 통한 에이즈(HIV)와 성병 감염의 급증 △특히 30대 이하 젊은 층의 감염 증가 추세 △국가 재정 부담 증가 등을 중심으로 명확한 자료와 통계를 공개할 예정이다. 거룩한 방파제에 따르면 최근 한국 내 에이즈 신규 감염자 중 절반 이상이 동성 간 성접촉으로 감염되고 있으며, 특히 30대 이하 젊은 연령층년들의 감염률이 증가했다. 또한 한국의 마약사범 역시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지난 5년간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동성애자들의 마약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젊은 층들에 대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소아성에 범죄 피해 아동들의 심각한 정신적·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발표되었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 학술연구팀장 고두현 원장(내과 전문의)은 “소아성에 피해 아동의 자살 시도가 일반인의 6배에 달한다”며, “아동 성폭력 경험자 중 자살 시도율은 21.1%로 무경험자의 3.8%에 비해 현저

히 높다”고 밝혔다.

고 원장은 특히 “아동 음란물에 의한 온라인 성범죄자 중 55.1%가 실제 성폭력 범죄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국내에서도 아동 음란물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 성범죄자들이 아동 음란물에 자극받아 실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 파일공유사이트에 평균 1분에 하나씩 아동 음란물이 올라오며 한해 다운로드 횟수가 400만 편에 달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고 원장은 “우리나라의 아동 음란물 관련 법규는 해외에 비해 경미한 수준으로, 미국과 같이 아동 음란물 소지만 해도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룩한방파제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이 동성애의 인권적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하여 편향 보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동성애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보도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 단체는 매년 귀어축제 반대 행사인 '거룩한 방파제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약 30만 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이 참가 인원을 축소 보도하고 있어 정확한 보도를 요청할 계획이다.

거룩한방파제 관계자는 “우리가 귀어축제에 반대하는 이유는 혐오가 아니라 동성애자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우려 때문”이라며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의 건강과 미래를 보호하기 위한 거룩한 방파제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0대 비율	3.7%	4.1%	3.4%	3.4%	1.9%	2.9%	2.1%	2.1%	1.5%	1.1%
20대 비율	31.8%	34.6%	34.0%	33.7%	34.0%	36.3%	36.2%	37.0%	31.2%	30.2%
30대 비율	21.5%	22.4%	22.6%	22.8%	23.9%	25.6%	26.8%	28.0%	33.3%	33.6%
40대 비율	19.4%	18.0%	18.2%	16.5%	17.3%	15.7%	13.5%	13.7%	15.3%	13.6%
50대 비율	15.2%	13.4%	13.1%	14.8%	14.2%	11.6%	12.6%	12.7%	10.7%	13.0%
60-70대 비율	8.4%	7.6%	8.7%	8.8%	8.8%	7.9%	8.8%	6.5%	8.1%	8.5%
합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2025년 현충일 즈음하여

#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국가의 정체성, 우리의 공동체성을 확립하고 지키자

6월 6일 우리는 제70회 현충일을 맞았다. 현충일은 독립운동가, 6.25 참전용사 및 전몰장병, 순직 공무원 등 조국의 안위와 발전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날이다.

현충일은 6.25 전쟁 직후 전사한 장병들을 위한 추도식을 육해공군이 각기 따로 거행하다가 전몰장병을 위한 국군묘지를 서울 동작동에 건립하면서 1956년부터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한 이후 오늘까지 국가 기념일로 지켜오고 있다.

매년 현충일에는 국립서울현충원 또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삼부 요인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정부 추념식을 거행했다. 또한 이날에는 전국적으로 관공서를 비롯하여 집집마다 조기를 게양하고,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에 사이렌이 울리면 이에 맞추어 길을 가던 사람들도 걸음을 멈추고 호국영웅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짧은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살롱나비는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혔다.

**1.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가야 할 국가의 정체성, 우리의 공동체성을 확립하자.**

국가는 사회 경제 안보 문화 등 우리의 삶 전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국가의 체제와 질서와 안정은 우리의 안정되고 질서있고 행복한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국가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우면 우리의 삶 또한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안정되고 질서있는 국가가 세워지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의식, 국가관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국가 공동체성, 곧 국가관에 대한 인식을 심각히 약화시키고 있다.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공무원들에게서도 바르고 굳은 국가관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특히 입법부에서 보여주는 질 떨어지는 난장판 국회의 모습과 일반인들의 상

식 수준에도 못 미치는 여야 정치인들의 이 전투구하는 모습은 많은 국민들에게 이들에게 맡겨진 국가의 미래에 대하여 실망과 회의를 안겨주고 있으며, 국가를 먼저 생각하기 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것이 현명한 처세술로 여겨지게 만드나.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적 기관으로 당연히 국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함으로 국가를 위한 봉사로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여야 하나, 당리당락을 우선하는 여야 정치권의 수준낮은 정쟁의 모습과, 정치인 개인의 권력욕과 정치적 유불리를 국가 공동체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비양심적인 정치인들의 태도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사회의 국가 공동체 의식 약화에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2. 오늘날 우리 사회는 국가관 위기를 맞고 있는데 무너진 국가관을 다시 확립해야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국가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의 군사적 대치와 미중간 신냉전 시대를 맞아 우리는 여전히 심각한 국가 안보 위기 상황 속에 있고 이러한 위기가 점점증하고 있지만, 정치권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위기를 현실적이고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집단 마취라도 된 듯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국가 공동체를 우선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이익을 희생하기보다는 나라야 어찌되든 눈앞의 개인적 출세와 성공 등 결과적 사적 이익 추구에 빠져 있는 듯한 현재 나라의 모습은 심히 우려스럽다.

국가를 먼저 생각함으로 개인을 희생한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현충일을 맞아 우리는 약화된 국가 공동체에 대한 의식, 무너진 국가관을 다시 확립해야 한다. 현충일을 맞아 국민으로서 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과 그들이 지켜온 국가의 과거 역사를 함께 기억하는 공공의 기억은 한 나라 한 국가 국민으로서의 공동체성, 국가관을 확립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성경은 신자가 자신이 속한 나라의 과거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을 말한다(신명기 32:7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이러한 기억은 국민으로서의 의무이며, 국가를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지키고 세우는 근원적인 힘이 된다.

특히 현충일을 맞아 우리는 우리가 물려받은 위대한 자유민주 대한민국과 그 안에서 국민으로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와 번영이 순국선열들의 희생 위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러한 공동의 기억 위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의 국가로서의 국가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유지 계승하고자 하는 국가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3. 6.25전쟁의 의미를 기억함으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지속적 위협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자.**

현충일의 주 목적은 6.25전쟁에서 희생당한 순국선열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것이라고 있다. 6.25전쟁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고, 이러한 6.25전쟁에서 장렬히 전사한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서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현충일의 가장 주된 의미는 이렇게 물려받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유지 계승 발전시키자 다짐하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싼 세계 정세는 6.25전쟁 당시와 같이 다시 한 번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 중국 러시아와 같은 공산전체주의의 세력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의 세력으로서 대한민국 미국 일본의 연대 강화는 이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에도 지금 우리나라에는 내부적으로 친중 종북 세력이 사회 각 분야에 잔치를 구축, 견고하고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한국 미국 일본의 연대를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시도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오늘날 많은 국민들, 특별히 젊은이들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일으킨 6.25전쟁의 끔찍한 참상과 의미를 잊어 버리거나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더욱이 6.25전쟁의 실상과 의미를 왜곡하는 역사가들, 정치인들, 학교 교사들이 젊은이들에게 오늘날 순국선열 호국영령들의 희생으로 지켜온 자유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선동하고 있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충일을 맞아 우리는 6.25전쟁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현재 어떤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어떤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야 할지를 깨우치는 교훈을 얻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6.25전쟁에서 희생당한 많은 사람들과, 전쟁 이후 우리의 선배들이 어떻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한 희생을 치렀으므로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우뚝 서게 되었는지를 돌아보고 기억함으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지키고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기 위해 자유민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관을 굳건히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4. 혼돈스러운 세계정세 속에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호국의 정신을 다지는 현충일로 만들자.**

지금 북한은 남한과의 교류를 아예 끊어버리고 2국가 체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하였고, 남북의 모든 교류 채널을 모두 차단하였다. 그리고 나서 러시아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에 1만이 넘는 군대를 파견하였 다. 러시아는 이러한 북한의 군사지원에 대한 댓가로 북한의 무력 증가에 필요한 군사 기술을 제공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력 증가와 핵무장과 러시아와의 군사동맹 등 여러 요인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의 위협도 증가하고 있는데, 한 정치인은 “외계인 지구 침공 때 답을 생각해보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인 우방중립정책보다는 주한미국방위비 증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한미일의 안보협력을 중시하면서 나라를 지켜나가겠다는 우리 자신의 호국 정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6.25전쟁의 뼈아픈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토방위를 철저히 하려면서 동시에 세계평화를 위해 기여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겠다.

**5. 정부는 전몰 장병들, 부상자 등 국가 유공자들, 그의 유족들에 대한 보훈제도를 더욱 심화 확충시켜나가야 한다.**

국가는 국민들의 국가 충성도 신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힘을 써야한다. 국가 원수부터 일반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국가 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이들의 희생에 대한 보훈제도를 개선해나가면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전사자의 시신(屍身)이 미국 땅에 도착할 때 반드시 그를 맞이하는 관례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 전사자들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영예롭게 생각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군 장병들과 부상자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존경심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미국이 강하다는 것은 단지 첨단 무기만이 아니라 군인들과 일반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도와 단합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 나라도 최근 국가 보훈처가 국가 보훈부로 승격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는 국가를 위한 희생자들(군인, 소방대원, 의사자 등)에 대한 예우를 국민 눈높이에 맞추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6. 한국교회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로서 대한민국의 유지 계승 발전을 위한 시대적 소명과 책임을 망각하거나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일은 교회의 존속과 신앙의 자유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성경은 교회가 존속하고 신앙의 자유를 갖기 위해 국가와

위정자를 위해 교회와 신자가 마땅히 기도해야 함을 교훈한다(답전 2:1-2).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공예배 기도와 신자 개인의 기도에서 이러한 국가와 위정자를 위한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많은 신자들이 국가의 체제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복음신앙과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고 개인 영성에만 치중함으로 복음의 공공적 또는 사회적 의미와 신자의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 하는 것이 더 신앙인다운 삶인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일찍이 칼빈과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아브라함 카이퍼 등 건설한 교회와 교회의 신학자들은 복음과 세상의 관계,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여 가르쳤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은 이념적 성향에 치우쳐 정교분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거나 또는 그들의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무지나 게으름으로 설교나 가르침을 통해 신자의 마땅한 성경적 국가관이 어때해야 하는지, 국가와 위정자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하지 않는다. 목회자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바른 이해를 갖도록 해야 한다. 교회는 신자들이 국가와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하고 또한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 바른 국가관을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교회와 신자들은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 애국운동을 선도해야 한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신의 나라, 국가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교회와 신자의 사명이고 책임이다. 교회는 우리나라가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한 정의롭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도록 올바른 국가의 체제와 위정자들이 세워지도록 힘써야 한다. 적어도 현충일이 있는 6월에는 이러한 교회의 사명과 책임을 더욱 각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5년 6월 5일  
살롱을 꿈꾸는 나비행동



# ‘2025 양평곡곡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아신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나눔

아신대학교가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과 손잡고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2025 양평곡곡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아신대 학교는 5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 아침, 양평 인근의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을 찾아가 등교길 버스킹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음악과 문화예술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공연팀은 대상 학생들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각 학교에 맞는 곡을 선택하고 있으며, 유치원에서는 동요와 밝고 경쾌한 곡을, 초등학교에서는 인기 가요를, 중학교에서는 감성적인 밴드와 힘이 되는 가사가 있는 음악 등을 중심으로 구성해 현장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아신대학교 관계자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은 우리 대학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대학이 가진 자원을 나누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양평교육지원청은 이번 2025 양평곡곡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중 일환인 ‘학교로 찾아가는 아침맛이 버스킹’을 통해 학교 현장에 문화예술의 숨결을 불어넣는 동시에, 아신대 형, 누나들의 버스킹을 통해 관내 학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이라고 본다.

‘학교로 찾아가는 아신대 학생들의 아침맛이 버스킹’은 5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 진행되며, 그 외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국악잔치, 뮤지컬 공연, 다도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 예술 프로그램이 양평 관내 학교를 찾아가 예정이다.

아신대학교의 따뜻한 선운은 앞으로도 지역 학교의 밝은 아침을 아름답게 수놓게 될 것이다.



# 목사의 경고가 만든 대학생 마약예방운동 ‘답콕’

2023년 8월,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의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곳곳에 충격적인 전단지가 붙었다. 내용은 ‘마약파티 참여자 모집’. 이를 처음 발견한 이는 다름 아닌 고려대학교교회 담임목사였던 박상규 목사였다. 그는 직접 전단지를 떼어내며 캠퍼스 내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제각했고, 이를 계기로 마약 예방 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다.

“마약이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님을 절감했습니다. 중독자 치료와 재활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고, 기도하며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목사는 이후 마약 관련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집중적으로 학습했고, 그 결론은 ‘예방이 최선’이라는 믿음

이었다.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같은 해 11월, 고려대학교에 최초의 대학생 마약예방 연합동아리 ‘답콕(DAPCOC, Drug & Addiction Prevention Center On the Campus)’이 창설되었다.

답콕의 설립과 활동은 곧 조직적인 운동으로 확장됐다. 두상달 장로가 이사장을 맡아 (사)대학을위한마약및중독예방센터 답콕이 공식 출범했고, 2024년 8월 19일 국회체험관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현재 답콕은 고려대, 연세대, 강원대 등 전국 13개 대학교에 설립되어 있으며, 약 300명의 대학생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매주 1회 정기 모임을 갖고, 마약 관련 세미나, 토론, 시뮬레이션은 물론 교내외 예방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대학별 연간 마약중독 예방 정기세미나 20회, 캠페인 4회, 연 2회 연합세미나 등이 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과 교환학생, 학군단 후보생 등을 대상으로 한 집단 예방교육, 대학 축제에서의 ‘마약예방 부스’ 운영, 영상 공모전, 전문가 초청 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캠퍼스 내 마약 예방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 6월의 녹푸름 앞산 옷

6월의 녹푸름, 앞산 옷자락 가슴에 어머니 어느새 풍아(風野)의 거친 숨결은 찾아들고 나는 꽃의 향기 속에 불빛 내리는 천상의 선율을 노래하리라. 아 넘쳐흐르는 6월의 향기여, 사랑이 익어가는 곳 마음의 지성소 주 안에 거하리라.

진리로 푸른창공을 향해 높이 비상하라.나는 하늘로 난 길을 따라 평화의 무지개처럼 높은 이상을 향해 달려가리라. 아 영광의 빛 카이로스(Kairos)여, 너는 베일 속에 진리로 채워가는 한 폭의 수채화라. 오늘도 생기의 기운 미풍(微風)따라 다정한 불빛 되겠네.

오 주여! 내 영혼 가득 당신의 형상 로고스(λόγος)로 빚어주소서. 내 마음에 샅벌이 떠오를 때 그대의 찬란함으로 어두운 나의 밤을 밝히 채우소서. 침묵의 벗이여 영광의 빛 그대 찬란함 되어 나의 어두운 밤을 밝히 주소서. 나의 어두운 밤을 밝히 주소서.

영접기도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깨우고 있다. 목회자, 장로 온 성도들이 전도자가 되어 영접기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한다면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는 없을 것이라고 오늘날 가족세트전도 대표 총재 박영수 목사는 외치고 있다.

지난주에 고모리 호텔 갤러리 사장님을 영접기도 시키면서 모든 목사님들이 큰 은혜와 감동의 물결이었다. 지난 날 교회신자였는데 사업하면서 오랫동안 다닐 수가 없었다고 고백한다. 앞에 호수가 보이고 백조배가 두 동실 떠나니며 시원한 분수를 내뿜는 고모리호수는 마치 한 폭의 그림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7월 23일-24일까지 각 계층 유명인사들을 모시고 여러 단계에서 가족세트전도 대표총재 박영수 목사, 7000명 4개 국어 찬양부르기 대표총재 임찬양 목사, 지선현 대표총재 강영준 목사 세계선교 강상수 목사, 김세천 목사 모두 협력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 내길 기대한다.

이태희 목사의 영상, 정창덕 총장의 특강, GOOD tv 이평천 목사의 찬양으로 멋진 밤을 지새우며 1박 2일의 [새롭게 빛을 발하소서]라는 주제로 대성회를 개최할 것이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가족세트전도 사무총장 시인 이수 교수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592-1691, 010)3730-2573



# ‘장기기증 유가족에게 위로와 회복’ 여행선물

순천·여수서 ‘우리가족 행복여행’ 진행,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GKL사회공헌재단

장기기증으로 생명을 나누는 유가족들이 자연 속에서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새로운 희망을 나누는 특별한 여정을 떠났다.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는 GKL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재경)과 함께 지난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33명을 초청해 전남 순천과 여수 일대에서 ‘우리가족 행복여행’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기기증 유가족을 위한 첫 치유여행 프로그램으로, 그동안의 일일 행사와는 달리 유가족들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여행 마지막 날인 5월 25일, 참가자들은 순천 낙안읍성과 순천만국가정원 등을 둘러보며 치유의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날은 생후 5개월 아들을 장기기증으로 떠나보낸 이기원(48)·윤정원(44) 씨 부부의 결혼기념일이기도 했다. 윤씨는 “하늘나라에 있는 승준



이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 같았다”며 “이번 여행에서 마음껏 울 수 있었고, 감정을 감추지 않아도 되어 좋았다”고 말했다.

2008년 남편 김유신씨를 장기기증으로 떠나보낸 정선자(62) 씨는 학창 시절의 추억이 깃든 순천을 다시 찾았다. 정씨는 “남편과 자주 걸었던 그 길을 다시

걸으며 그와 함께하는 기분이었다”고 전했다.

이번 여행에는 유가족들의 마음을 열기 위한 테라리움 만들기, 힐링 요가 등의 프로그램은 물론,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시민 대상 장기기증 캠페인도 함께 열렸다. 둘째 날 열린 토콘서트에서는 도너페밀리와 장기이식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018년 심장이식을 받은 오수진 가상캐스터가 사회를 맡아 “기증인의 용기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고, 2009년 첫째 아들을 기증한 문병철(50) 씨는 “가족이 함께 웃고 울었던 이번 여행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라며 감격을 전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번 치유여행은 유가족들에게 삶의 원표이자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가족들을 위한 지속적인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소년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위한 국제 공모전 개최

기아대책, 전 세계 취약국가를 돕기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최창남)이 청소년들과 손잡고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 세계 취약국가를 돕기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 공모전을 연다.

기아대책은 한국산업지능화협회, 기아대책 국제연대(Food for the Hungry International Federation)와 공동으로, ‘2025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청소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지난 5월 7일(수)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롯데백화점이 후원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내 중·고등학생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취약국가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지역개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청소년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모 주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개발 프로젝트(완화 및 적응) △사임비 3천만 원 이내, 1년 이내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 △미얀마, 탄자니아, 스리랑카, 잠비아 4개국 중 하나에서 추진 가능한 기획 등이다.

공모는 6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기아대책 기대플러스 홈페이지

(hope.kfhi.or.kr)를 통해 신청서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공식 이메일(climate@kfhi.co.kr)로 가능하다.

제안된 프로젝트는 창의성 및 혁신성(30점), 실현가능성(20점), 지속 가능성(20점), 사업 영향력(30점) 등 네 가지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되며, 기아대책 이사진과 기후변화 전문가, 산업지능화협회 관계자들이 심사에 참여한다.

총 12개 팀이 수상할 예정이며, 대상 1팀에게는 100만 원의 상금을 포함해 총 500만 원 상당의 상금이 수여된다.

홈페이지 : [www.ucts.org](http://www.ucts.org)

AG

ASSEMBLIES OF GOD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5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를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 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mailto: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 목양신문

구독문의(우편발송요금) 02)2677-9936

광고문의 02)2677-9936 FAX 0504)027-0897

웹하드 : ID mok677 PW 5277

E-mail : [mok2677@naver.com](mailto:mok2677@naver.com)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명예대표 · 논설교론, 칼빈대 전 교수, 대석교회

##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



"내가 비록 아직 교회는 안 다니지만 웬만큼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보다 천국과 지옥은 더 잘 안테이. 다년간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관 뚜껑만 열어봐도, 이 사람이 천국행인지 지옥행인지 구분할 수 있다 아이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과 안 믿다가 죽은 사람은 한 눈에 척봐도 알 수 있거든.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의 시체는 보는 순간에 언제나 오싹하게 한기가 드는 기라. 하나같이 눈을 부릅뜨거나 혀를 빼죽내거나 오만상을 쓰고 무시무시해."

"근데 예수 믿던 사람들은 몸쓸 병으로 그렇게 아파하다가도 입중이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 얼굴이 환하게 퍼지면서 편안한 모습이니 도무지 죽는 사람 같지가 않아. 한 돌이 아니라 보는 족족 그러니, 나도 예수 믿으면 좋은 데 간다는 것 아니까 언젠가는 믿을꺼라."

박효진 장로의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책 내용 중에서 영안실 책임자가 한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인 나사로와 부자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들어갔고, 예수님을 믿은 나사로는 천국에서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생명)을 받아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영안실 책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만 수많은 시신들을 보면서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현재에서도 천국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삽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립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현재에서 성공과 행복을 원하지만, 그가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고생과 험한 나그네의 인생 길뿐입니다. 천국의 영생을 알지 못합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그 결국은 이 땅에서도 후회막급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옥에서 죽음보다 더 지독한 환경,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끝이 없으니 지옥의 영원한 형벌과 고난이 그런 것입니다. 이 같은 분명한 진리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가 이렇게 명백한데, 우리의 불신 가족, 친지, 친구들, 이웃들을 그냥 두어서야 되겠습니까? 전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불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전해야 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31)

###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 주께로 가는 길

고난의 물 마신 후에야

땅의 질주 멈추고

그때야 위를 쳐다보는..

갈 때까지 가야 직성이

풀리는 죄인입니다.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삼상 7:14)

그런 아픔 겪은 후에야

부산함 멈추고

내면의 소리 듣는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겉 사람이 겉친 죄의 누더기

친히 벗겨 내시고 속사람

강건토록 성령으로 도우시며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좋으신 분

사랑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겪지 않고  
어찌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수 있었을까?  
지금은 그 과정이 감사하거만 하다.

### 사설

##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지금처럼 불행한 일이 앞으로는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느 한쪽 권한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번 총투의 원인을 분석하여 양쪽 권력을 제한해야 된다는 말이다. 즉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동시에 국회의 권한과 특권을 제한하는 개혁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처럼 국회의 막강한 권한과 특권은 그대로 두고 대통령의 권한만 제한해서는 같은 불행의 역사가 그칠 줄 모른다는 얘기다. 현재 국회의 입법권은 무소불위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국회는 한 개인의 면죄를 위해 법을 바꾸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대법원장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위협하고, 대법원의 모습을 아예 완전히 바꿔버리겠다고 하는 지경이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아니라 정치 폭력 기관처럼 행동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역사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절대 권력은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절대 권력이 아무런 통제없이 집중될 때 결국은 몰락하거나 파멸에 이른다는 경고다. '절대 권력은 망한다'는 말은 영국의 역사가이자 정치가인 액턴 경(Lord Acton)이 남긴 유명한 명언이다.

그가 말한 내용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Power tends to corrupt and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에서 유래했다. 이는 권력이 견제 받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부패와 타락을 낳는다는 의미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은 절대 권력을 지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의원들의 특권은 186가지가 된다. 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올해 1인당 GDP는 4800만원쯤 되는데, 국회의원 세비(연봉)는 그 3배가 넘는 1억 5690만 원이다. 의원들이 저마다 보좌진 9명을 거느리며 사무실을 운영하는 비용은 이보다 훨씬 크다. 대다수 선진국이 2-5명임을 감안하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업무 추진비, 정책 개발비 등 온갖 명목으로 지원받는 액수가 웬만한 선진국 의회보다 많다.

그뿐일까. 국회의원들이 받는 의전도 과도하기 짝

이 없다. 게다가 항상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도 원래의 취지를 넘어서고 있다. 의회의 불체포특권은 원래 영국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불체포특권은 한국과는 다르다. 영국에서는 형사 문제에서는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은 전천후 불체포특권이다.

미국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시위 중 경찰 명령에 불응한 연방 의원 10여 명이 무더기 체포된 일도 있다. 한국 의원들은 개인 비리나 부패 혐의가 있어도 불체포특권의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면책특권을 내세워 아니면 말고식 의혹을 남발하는 일은 일상화됐다. 그래서 국회가 모든 괴담과 가짜뉴스, 유언비어의 근거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차제에 이런 모든 것들을 개혁해야만 반복되는 불행을 막을 수 있다. 대통령의 권한뿐만 아니라 국회의 절대반지 권한도 개혁해야만 하는 것이다.

세로위져야 한다. 투표를 12%에 불과한 멕시코 국민투표, 판사도 국민 투표로 뽑는다는데 투표율이 12% 밖에 나오지 않는 해괴한 일을 멕시코가 하고 있다. 세계인의 조롱거리인 줄도 모르고 그 나라가 가라앉고 있다.

헌법의 가치를 무시하는 입법 만능주의가 팽배한 지금, 개인권력 중심의 다수당을 손에 넣은 대통령으로 법의 형식을 빌린 독재의 길을 여는 것이다. 집권당의 개헌안은 국회 권력을 대폭 강화하면서도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폐지는 제외했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허점을 파고드는 선술 독재의 위기에 처한 시대에 다수의 폭정이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권력 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 통제 받는 권력으로서 민주적 규범을 확립하는 것만이 오늘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급선무가 되었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려면 국회가 변해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5-28)

##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몽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 락 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 수 교 대 한  
하나님의성회

# 제74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74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5년 7월 17일(목) 오후 1시 (11시 30분부터 점심식사)

2)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7월 4일(금)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

또는 팩스(02-2677-5181)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14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엄 하 석  
총 무 목사 오 세 준